

김영록 지사, “위생·친절·합리적 가격… 관광서비스 대전환”

대도민 담화문,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 등 품격있는 관광 전남 강조하며 종사자 동참 호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최근 잇따른 음식점 불친절, 잔반 재사용, 숙박업소 위생문제 등에 대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사과하고, “위생과 친절, 합리적 가격이 기본이 되는 관광서비스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관광서비스 대전환을 위한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 음식점과 숙박업소 위생관리 강화, 진심어린 환대문화 정착, 관광객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 3대 전략을 발표했다.

담화문에서 김영록 지사는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앞두고, 올해와 내년 전남에서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남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이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는 전남 관광의 품격을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과 관광업계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위생과 친절, 합리적 가격이 기본이 되는 관광 서비스 대전환을 위한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위생관리 대폭 강화, 진심어린 환대문화 정착, 관광객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별로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위생관리 대폭 강화를 위해 ▲위생등급제 인증 업소를 중심으로 ‘특화구역’을 지정하고, ‘안심 먹거리 존’ 조성 ▲2만 9천 개 음식점에 종사자용 친절 양치마 보급 ▲고령 자영업자 대상 위생 컨설팅 ▲잔반



제사용 철저히 금지 ▲우수 숙박 청결 인증 900→1천 곳 확대 지정 등을 추진한다.

친절 문화 정착과 합리적 가격 체계 확립을 위해 ▲혼밥 가능 음식점 확대, 1인용 식탁 보급(1천 개) ▲요금 사전 신고제 및 착한 가격업소 확대(기존 548곳에서 50곳 추가)와 철저한 정보 ▲불친절 민원업소 데이터베이스 관리, 특별 위생 점검과 함께 적발 시 페널티 부여하고, 중대한

위반 시 지원 중단 등에 나선다. 관광객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여 개 관광안내소를 ‘전남관광안내센터’로 확대 운영 ▲‘JN TOUR’ 앱에 불편 접수 시스템 도입, ‘신고접수 대표전화’ 등 신속한 민원 접수 및 처리 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한다.

김영록 지사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관광업 종사자에게는 위생과 친절, 합리적인 가격 실천을, 도민에게는

관광객에 대한 따뜻한 응대와 불친절·바가지요금 업소 발견 시 즉각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전남도는 8월 말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를 시작으로, 10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LPG BMW 골프대회, 국제농업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더 청결하고, 친절하며, 신뢰받는 품격있는 관광 전남을 실현할 방침이다. /염선호 기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빛나는 아이나라’ 정식 개관 지하상가 유희공간 리모델링, 13일 기념식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금남로 지하상가 내 빈 점포 유희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빛나는 아이나라’가 지난 9일 정식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정식 개관을 기념해 13일에는 임택 구청장과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지역 어린이 단체 관계자, 학부모 및 어린이 등을 초청해 축하 행사도 연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개관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이 시설을 함께 둘러보고 현장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는 시간으로 꾸러진다.

어린이들은 인공지능(AI) 기반 나만의 동화 영상 만들기, 미디어아트 그림 그리기, 공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동구는 오랜 기간 공실로 방치돼 있던 금남로 지하상가 공간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난 2021년 사업을 기획했다. 약 1,600㎡(500평) 규모의 ‘빛나는 아이나라’는 크게 예술장작소

와 동화공작소로 구성됐다. 예술장작소는 미디어아트 체험전시, 공예, 물감놀이 등 감각적인 체험이 가능한 예술 공간으로, 아이들이 디지털 드로잉과 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표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AI 기반 기술을 활용한 동화 제작 체험공간인 동화공작소는 캐릭터 생성, 스토리 구성, 배경설정 등 ‘나만의 동화’를 만들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외에도 보호자를 위한 라운지 공간, 친환경 자재로 꾸민 안전한 실내 환경 등도 갖춰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동구는 향후 ‘빛나는 아이나라’를 거점으로 ▲연령·계절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육 기관과 연계한 체험 콘텐츠 개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 문화원과 협력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형 문화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철수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기억에서 평화로’를 주제로 기념주간을 운영한다.

서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구술 사진전, 착한서구 평화열차를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평화·인권의 가치를 나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념주간 첫날인 14일 서구청 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서구, 광복 80주년 기념주간 운영한다

‘기억에서 평화로’ 주제로 헌화식·사진전·평화열차 등 운영

자를 추모하는 기림의 날’ 헌화식이 진행된다.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헌화와 묵념으로 피해자들의 아픔과 역사를 기린다.

서구청 1층에서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구술 사진전’이 열린다. 이번 사진전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사진

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전하고 주민들의 역사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14일부터 22일까지 운영된다.

이어 22일에는 ‘#5·18 to 8·15, 역사와 함께 달리는 착한서구 평화열차’가 운영된다. 주민 330명이 오전 6시 광주 효천역을 출발해 제3평굴·도라전망대 등 파주시

DMZ 일원을 방문해 분단의 현장을 체험하고 열차 내에서는 기억의 뮤지컬, 평화멜로디, 추억의 유키즈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광복 80주년은 우리 민족의 고난과 극복, 그리고 평화의 소망을 되새기는 뜻깊은 해”라며 “이번 기념주간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 세대와 평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12일 효천지구 인근 광주 SRF 시설 약취 발생과 관련,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건강 보호를 위해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지난 11일 오후 4시 효천지구 주민들과 함께 양과동 광역위생 매립장을 방문, SRF 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주)과 간담회를 갖고 약취 발생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병내 구청장과 주민들은 시설 운영사

“SRF 약취 해결, 모든 행정수단 동원”

김병내 구청장, 간담회 통해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 밝혀

에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약취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SRF 시설의 배출구 및 건물 외부, 부지 경계 3지점에서의 약취 측정과 폐기물 반입 및 반입이 이뤄지지 않을 때의 약취 측정 비교 자료, 피해

지역 안에서 약취 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이날 약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청정빛고을(주)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 이행 절차를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특히 지난 6월 12일과 13일 양일간 각각 SRF 시설 부지 경계인 매립장 정문과

3층 옥상 배출구 2개 지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약취 시료를 채취해 오염도 검사를 진행했는데, 배출구 주변 약취 오염도는 두 번 모두 기준치 500을 훨씬 초과한 669로 측정됐다.

남구는 이 조사를 근거로 지난 6월 19일 청정빛고을(주)에 개선 조치 이행을 즉각 권고했고, 청정빛고을(주)는 5일 뒤 구청에 건조 배가스 배출시설 관리 강화와 에어커튼 설치, 정기보수 주기 시행을 담은 약취 개선 계획안을 제출했다. /임재일 기자

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8주년 기념행사 개최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다가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평화의 소녀상 건립 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8주년 기념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자 북구가 주최하고 북구소녀상평화인권추진위원회(위원장 빙성수)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문인 북구청장, 지역의원,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오전 9시 30분부터 소녀상 포토존, 호남지역 피해자 7인 얼굴 사진 전시, 다짐 한마디 방명록 작성 등 식전 프로그램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행사 개최를 선언한 뒤 국민의례와 묵념, 참석자 소개, 추진위원장 인사말, 북구청장 및 북구의회 의장 축사와 황예

원 북구 의원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다음으로 추진위원장, 북구청장, 북구의회 의장, 어린이와 청소년 대표 등 7인이 함께 위안부 피해자 증언록을 낭독하며 그날의 아픔을 다시금 되새겼다.

낭독 이후에는 북구 시니어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소녀들의 외침’, ‘내가 소녀상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단체 사진을 촬영한 뒤 행사를 마쳤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지난 역사를 되새기고 피해자들을 기억하고자 마련한 뜻깊은 행사”라며 “북구는 앞으로도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